

보도시점 4. 16.(수) 조간 < 4. 15.(화) 12:00 >

중기부,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중기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 선정,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 수행
- 올해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원 연계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공인 집중 육성,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27년까지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을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프로젝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27년까지 지속적 가능한 소공인 육성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은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는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지역별 특성이 강한 소공인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정책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딘 만큼,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박현용 (044-204-7885)
			주무관	차우건 (044-204-788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목적 및 역할**

- (목적)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선정 지원
- (역할) 지역중심의 소공인 육성 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내 소공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허브 역할 수행

□ **지원대상 및 예산규모**

- (지원대상) 소공인 정책역량을 보유하고 광역지자체 지방비 출자 요건*을 갖춘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1개

*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 (예산지원) 3년간 매년* 국비 5억 내외 +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원 연계**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27년까지 지속 지원, 평가결과 미흡시 협약 미연장

**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에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소공인 추천(공고·평가 등) 권한 부여

< '25년 '지역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연계지원 규모 >

지원분야	주요 사업	'25년 지원예산
판 로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10개사 내·외)	2억원 이내
제조혁신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50개사 내·외)	21억원 이내
환경개선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50개사 내·외)	2억원 이내
계		25억원 이내